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권(權)을 갖는 자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3428 www.seoulchurch.or.kr

새 예배당 입당

2000. 12. 25 오후3시 입당예배드린다.

1998년 10월10일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감사예배를 드린 지 805일 만인 2000. 12. 25 오후3시 입당감사예배를 온 성도의 참여 속에 각계 지도자와 내빈 그리고 서울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준 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새로 입당할 본당에서 드리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의 821평 대지 위에 연건평 4,500여 평으로 지하3층 지상8층으로 건축된 본 예배당은 3300석의 예배실, 500석의 중 예배실, 그리고 40여개의 교육실과 사무실, 게스트 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예배당은 국내외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이 합쳐져 오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교회로서 그 사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3시에 드려질 입당예배에는 머릿돌 및 헌관 제막식에 이어 핸드벨 팀을 선두로 입장하여 이종윤 담임목사의 사회로 설교는 임인식 목사가, 축사는 이만신 목사와 유관지 목사가 맡게 되며 건축위원을 비롯한 시공회사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된다. 예배 후에는 교회 옆 한티 공원에서 입당감사 잔치가 벌어진다. 당일 예배당에 오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1:15)
주후 2000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이 머릿돌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임."



성탄절과 입당감사 메시지

성전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종운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 천년 원년의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9년전 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힘쓰던 그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는 감격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곳을 삶의 중심지로 삼았듯이 우리는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의 문법을 이 예배당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 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처소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처소

에덴동산을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그 곳을 떠나셨다. 그러나 광야생활 중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tabernacled) 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 중에 임재 하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이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하는 이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니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것이다.

광야의 장막에는 모세 율법이 있었다. 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차서 누구든지 베블리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처소로 삼으셨다. 희생제물이 바쳐진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처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막이 후일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혈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받아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성전되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것이다. 엎전 두 잇을 바친 한 과부처럼 파출부와 간병인 사역을 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친 성도로부터 많은 것을 기쁨으로 바친 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정과 성을 다하여 이 전을 짓는 일에 힘을 모았다.

파출부와 간병인 사역의 헌금이 성전의 밑거름

바지를 열어 몇억씩 모아 바친 것도 기적요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하나 하나가 탄성 없이 이루어진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기까지 조절해 주셨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주셨다. 시급할 때는 비상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듯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한 건의 사고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 하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조국이 경제난을 당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전을 짓기 위해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현물을 바치었노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예배당이 기도한 대로 세워진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벽돌이 아닌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짓게 하옵시며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집을 영화롭게 하소서!

담임목사 이종운

이성의 목사 (연동교회)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의 차이가 큼니다. 서양 사람들은 변경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운데보다 변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심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보다 가운데 몰려 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입니다. 집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웅기뿍기 모여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는 교회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좇아 짓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도시의 이름을 따랐고, 어느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동네의 이름을 좇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혁교회의 전통보다 좋은 말글을 좇아 이름을 짓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장로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서울에 세워진 대표적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서울교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서울교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외형으로는 초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뻐하셔서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서울교회의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서울 시민들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보게 되기를 바라며 새 예배당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권문용 (강남구형장)

새 천년을 여는 200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강남구에 훌륭한 성전을 신축하여 입당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의 입당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1991년 11월 24일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교회를 창립하여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웃사랑의 촛불을 밝혀 신앙에 매미른 가치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주신 이종운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어린 이웃사랑 실천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온누리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넘쳐흐르는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중 목사 (온누리 교회)

서울교회 입당 그 이름이 말하듯이 그것도 서울 강남의 한 복판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여진 성스러운 한 몸으로 우뚝서게 됨을, 그저 듣기만 해도 좋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경사입니다.

서울교회하면 언제나 신선한 충격적 방법과 해법을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큰 스승 이종운 목사님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계시서 벨엘의 한 돌을 취하여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에 세워 기쁨 부게 하시니 다시 서울교회라 칭하시니 그 은혜 그 축복 함께 모인 온 무리와 더불어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믿음의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오



병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같은 이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광야의 늪을 지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서울교회 형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를 위한 노력의 집념이 조화를 이루어 창출해낸 하나의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과 응집된 결정이 이처럼 아름다운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순복하고 의지하면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이 교회는 해지는 서쪽 반포동에서 해 뜨는 동쪽 대치동으로 제2의 개척자의 모습으로 전진 생동하는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반드시 새로운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어 소망스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출 15:17)"

이승영 목사 (새벽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편)

세상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건물에서는 인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행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령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곧 '영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껏 양육 받으시고 충성, 봉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더욱 견고히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용진 박사 (기독교교도소 실무추진단원)

먼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당 완공을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시작해 놓고 과연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주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를 미워하는 형들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는 순간에 그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말하며 그 꿈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아는 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요셉의 경우와 같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심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기독교교도소 역시 그 기초는 생명을 구하고자하는 꿈에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꿈이지요.

이제 기독교교도소와 서울교회는 열심히 서로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생명 구하는 경주를 시작합니다. 피차간에 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늘의 잔치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주의 대상이 어디 기독교교도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큰 일을 저질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과 한국과 세계에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싸움을 경쟁하듯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김명언 목사 (독일 아노버 한인교회)

1. 오늘은 거룩한 밤입니다.
지구의 한쪽 편인 이곳 독일에서는 일년 중 가장 많은 예배가 오늘 하루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날입니다. 가족끼리 선물을 교환하며 저녁에는 다함께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오늘 (12/24)을 '거룩한 밤(Heiligabend)'이라고 말합니다.

2.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한 밤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한 날입니다. 서울교회가 그토록 소원하며 기도하던 새 예배당으로 입당하여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의 수고로움이 있었듯이, 어부의 얼굴에 미소가 있기 위해 밤새 땀흘림이 있었듯이, 대치동의 새 예배당이 있기까지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예배당이기 오늘도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한 밤(Heiligabend)입니다.

3. 거룩한 밤이 지나야 거룩한 날이 옵니다.
거룩한 밤(Heiligabend)이 지나야 거룩한 날(Weihnachtstag)이 오듯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서울교회의 영광스런 앞날을 위해 오늘은 그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의 날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아니라 민족의 빛이 되는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곳 독일 아노버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서울교회의 새 예배당 입당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Fröhe Weihnachten!

지난
돌아!



서울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장들 하시는군요. -이곳은 논현동 예배당 앞입니다.



91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서울교회 첫번성탄행사 -성경암송하는 이 아이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랍니다.



94년 봄 잠실에서서의 '한가족 한마음 축제' 장면 -용순복 사모님 와이팅



반포동 예배당

종18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던 YMCA강당, 이제는 바이바이 ...



2001년 김치세미나는 아프리카에서 오신답니다.



매마다 3월 7일 세례식

월을
나 ...



6년 7개월간의 반포동 예배당 시대의 시작입니다.

93년 여름 삼척에서의 추억 - 정생국 전도님 곧 아기 아빠가 되신답니다.



서울교회의 사랑-김밥부대 목회자세미나를 위하여 180일동안 김밥을 싸셨답니다.



95년 10월 헌혈식- 내년에는 장기기증식이 있습니다.



95년 여름 용평강로 교회로 갔었던 농촌봉사팀입니다.



92년 봄 교구모임입니다.-오정수장로님 그때는 날씬하셨군요.



망이사하던날



서울교회가 주관하는 육사 식복음화의 초석입니다.

대치동 시대를 부락한다.

이용선 장로 (2교구)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하신 말씀 앞에 나는 항상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덕 있는 믿음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나의 삶은 과거에도 덕이 모자랐고 70을 넘은 지금도 덕이 부족하며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해 장로수련회에서 주신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매년 수첩에 옮겨 쓰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한 통찰력으로 자기 영혼을 도야시키고 교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도를 권면선도하며 분별력과 지도력을 갖춘 장로가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대결보다는 양보를 하며 감경보다는 이해를 하고 강요보다는 대화를 하며 논쟁보다는 덕망으로 하고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신앙과 장로직 수행의 좌우명으로 살아왔다. 장로직을 은퇴하면서 후배장로들이 솔선수범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더 더욱 제 일대 장로들이 교회설립에 크게 공헌하고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새 예배당 건축을 마감하고 안식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한쪽의 명화를 감상하는 기분이다.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말씀으로 향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지도와 당회원들의 보살핌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 예배당 시대를 활짝 열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보라 이 기적의 현장을!

오명수 장로 (3교구)

1991년 10월6일 서울교회 태동을 위한 168명의 첫 번 기도모임은 강남구 논현동 165-18 강중심 집사(전인화 권사) 소유인 새 빌딩에서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2년6개월 만인 1994년 5월1일 서초구 반포동 위치에 새로 지은 빌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 7개월만에 그것도 새 천년 원년인 2000년 성탄절에 이번에는 임대자가 아닌 새 예배당 시대가 강남구 대치동에 열리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감회가 깊다. 교회설립 당시 빈손 들고 시작하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지를 물색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 교회를 세울만한 곳이라는 소문만 듣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 보았다. 아마 못해도 100곳은 넘을 것이다. 때로는 계약금을 갖고 가서 계약전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취소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학교를 인수하여 교회를 짓겠다는 꿈에 부푼 적도 있었다.

시유지, 토지공사 소유의 땅, 회사 체육관, 개인 소유에 이르기까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막힌 사연들을 물어둔 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고 계신 땅을 우리에게 통째로 안겨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하시다. 누가 꿈엔들 생각할 수 있는 땅인가? 그곳에는 이미 큰 교회가 수 십년간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다. 주변이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6천여 평이 넘는 아름다운 공원을 끼고 전철역이 옆에 있는 입지조건 만점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서울교회 터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존교회를 옮기시고 그 아름다운 터 위에 옆에 있던 빌딩까지 합쳐 종교부지로 전환시켜 우리 교회에 통째로 안겨주셨다. 95년 10월18일 복양감리교회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96년 2월24일 정림건축과 신축 설계계약을 맺었다. 한편 주민대표들과 수십차례 면담하고 강남구청 건축관련 집담 민원심사를 몇 차례 거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차분히 대처해나갔다. 마침내 97년 8월14일 건축심의 9월5일 국토심사가 통과된 후 설계가 마무리된 98년 10월10일 상상종합건설과 가계약을 맺고 일 시작 감사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떴다. 그 환희의 순간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러나 상상은 99년 11월 15일 회사 부도를 내고 파산하므로 그 해 12월6일 당회는 자영하기로 결정하고 17일에 시공자 변경신고를 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자영에는 우선 자금이 현찰이어야 하고 경험있는 회사가 아닌 아마추어 건축경력자로는 힘에 부친 일이었다.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같은 지혜있는 건축위원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믿음과 추진력과 물질까지 부어주시어 차고 넘치는 과분한 은혜속에 지상8층 지하3층 연건평 4500여평, 본당3300석을 확보한 우람한 교회당을 짓게 하셨다.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금과 뜨거운 기도 그리고 시간과 몸을 드려 현장에서 봉사한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남게 되었다. 새 천년 원년인 2000년 그것도 역사의 앞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성탄절에 입당을 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열렸다 하늘 문이! 나는 감히 외치노라 보라 이 기적의 현장을!

180번 김밥을 마는 동안

편인화 권사 (2교구)

9년전 그때는 우리 권사들이 페나 젊었다. 현숙하고 지혜롭고 용감하며 타산

적이거나 망설임 없이 추진력 있는 여장부들이었다. 뜻하지 않게 역삼동에 토네이도 회오리가 불어닥쳐 거목이 뿌리째 뽑혀 나갈 때 몇 십장의 나뭇잎이 날아와 논현동에 모여 서울교회를 탄생시켰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섭고 오묘하시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권사들은 열심히 뛰었다. 논현동에서 반포동으로 셋집으로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종윤 목사님에게 비전으로 명하셨고 목회자 신학제미나, 김치 세미나를 시작하셨고 온 교인은 그 뒤를 따랐다. 우리 권사들은 좁은 공간에서도 김장을 담그고 김밥을 팔며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하면 우리 목사님의 처진 어깨에 힘을 드릴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오직 그 일반 생각하며 우리 권사들은 몸으로 물질로 아낌없이 봉사했다. 18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끝으로 이제는 김밥봉사도 끝이 났다. 180회의 김밥속에 계란이 무려 37,000개가 들어갔다. 그 37,000개의 계란이 깨어 닭이 되고 그 닭이 또 알을 낳아 그 알이 또 닭이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침단적인 수가 된다. 한국교회의 갱신운동과 민족복음화가 이처럼 침단적인 수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처럼 우리가 180번 김밥을 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지으셨다. 아름답고 웅장한 대한민국에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지으셨다. 셋집신세를 청산하고 내집 새 예배당으로 내일이면 들어간다.

선두에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장로님들은 열두 돌을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무조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앞장서 가지며 다 이루어 주셨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다. 9년전 애통하며 울었던 우리들은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 권사들은 9년의 세월 속에 이제는 많이 늙으셨다. 굽어지는 허리며 시큰거리는 무릎 지팡이를 의지하는 백발의 늙은이들이다. 주름진 얼굴은 옛날 용감했던 관록의 훈장으로 보인다.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초대 장로-권사 은퇴식이 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명예스럽다. 아낌없이 서울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권사들이기에 결코 섭섭함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 우리 63명의 은퇴 권사들은 서울교회의 63년 묵은 거목이 되어 귀하신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 동역하며 애쓰시는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아우 동서 같은 젊은 권사들 장래 서울교회를 이끌어갈 안수집사, 막내 아들-딸 같은 집사들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울교회 위에 그늘도 지어주고 바람도 막아주며 산소를 공급해주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 서울교회 역사가 길이 길이 그 이름이 남아 오고 있는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

영광의 입당이 눈앞에 다가오니 함께 울며 기도했던 앞서간 몇몇 권사들이 새삼 아쉬움으로 생각한다. 이 대장정의 가나안 입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 지휘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서울교회의 불빛은 만방을 밝히리라.

성경공 강로 (5교구)

서울교회여 축하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는지.

아니 지금 이 모습은 그 동안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과 기도를 훨씬 초월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욕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니 어찌 이 죄인들이 상상이나 했으리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자들처럼 땅만보고 사는 사람들이여 눈을 들어 저 높이 솟은 십자가를 보시오. 그 끝 저 하늘 위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합니까? 당신을 부르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합니까? 우리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울교회를 축하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축하 받는 자리에 함께 섭시다. 우리는 그저 절없는 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졸랐을 뿐인데, 부모 따라 이사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들떠서 밤늦은 줄 모르고 이 구석 저 구석 청소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쳐다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다니, 추위도 잊은 채 모닥불 피우며 밤새워 지킬 만 하였구나. 땅에 놓였을 때 그저 흙빛 같던 벽돌들이 하나 하나 쌓이더니 저렇게 은근히 미소지으며 사랑스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니, 어느 누가 이를 기도로 쌓지 않고 사람이 쌓았다고 하겠는가

예배당위에 십자가 탑돌을 높이 세우고 아닌 어떤 교회는 돌씩 새웠으나 이 모습은 또 무엇인가? 일곱 개 아닌가? 아니 십자가는 하나잖아? 참 그렇지 십자가는 하나면 충분하지, 그럼 촛대가 여섯인가? 아니 저 십자가에도 불이 켜졌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초대 일곱 교회는 그 불빛이 동방을 넘어 서방으로 퍼져 나갔는데 주여 이제 이 서울교회의 불빛은 만방을 밝히게 하옵소서.

금방 영화 장면이라도 나올 것 같은 입구의 저 하얀 스크린처럼 보이는 곳은 또 무엇인가? 주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저 곳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앞뒤를 구분하여 한쪽은 세상 죄와 담을 쌓게 하시고 한쪽은 창문을 많이 달아놓았으니 주여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지은 죄를 토설케 하시고 맑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물들은 파괴도 미끌어질 것처럼 세워졌는데, 서울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만들어졌구나 누구든지 오시오. 저 모습처럼 처음 믿기는 높고 어려운 것 같으나 다음 단계부터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저희에게 결과 속에 다르면 안되고 믿음과 행실이 다르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여 우리 서울교회는 결과뿐만 아름다운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며 행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지단날을 생각하며 울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천년 성탄의 선물

유을상 집사(6교구)

좋은 하나님께서 새 천년 첫 성탄의 선물로 새 예배당을 우리 서울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 자원 봉사 등으로 수고한 손길들, 그리고 건축현장을 피수하려고



주운 예배당 뜰에서 군고구마와 라면으로 긴 겨울밤을 지낸 믿음의 형제들! 영광의 주님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연경(유지부)

크고 멋진 새 예배당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유지부실도 너무 너무 예쁘고 좋아요. 고운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하겠어요.

이예진(유지부)

아기 예수님 나신 날 드디어 우리 교회는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다. 새 교회로 가게되어 너무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다. 가서 보았는데 굉장히 높고 멋있었다. 유지부실도 넓어서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다. 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박찬우(유지부)

우리 주님오신 기쁜 날 우리는 새 예배당에 입당해서 예배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항상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이 우리 새 예배당처럼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최운성(유지부)

이번 성탄절에 대치동으로 우리 교회는 이사를 간다. 그 새 예배당에 가본 누나는 지금 예배당 보다 훨씬 크고 멋진 예배당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복받을 수 있다.우리집에서는 새 예배당이 조금 멀다. 하지만 집이 더욱 먼 친구들을 생각해서 꾸준히 다닐 거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배당을 통해 축복 받고 천국가는 것 만해도 너무 기쁘다. 나는 정말 조금 멀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 다닐 거다.

박민경(유년부)

대치동에 이어지는 새 예배당은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넓고 좋은 교회로 지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습을 변했듯이 나의 모습도 변하고 믿음도 커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탄절인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새 예배당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유년부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 예배당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새 예배당에서는 예전보다는 더 큰 기쁨과 기도로 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신동기 권사 (3교구)

일곱 금촛대가 높이 들려 영광의 광채로 진동하는 찬란한 새벽!

거룩한 손 하늘문이 열린다 영광! 영광! 영광!

쏟아지는 갈채 속에 휘황한 하늘 자랑 어깨에 거룩 거룩 휘감고 왕같이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서울이여!

당신의 심장으로 촛대마다 불을 켜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큰 사랑하는 영혼을 찾아 오늘도 온몸으로 우주를 추켜들으리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꾸고 믿었던 서울이여!

죽고 또 죽는 순결한 죽음이 억만번 예정된 오늘의 축복이여

오직 한줄기 사선을 넘어 뻗어가는 생명은 사무치는 하늘을 휘돌아 이땅의 태줄로 이어지고

목숨같은 피붙이들! 하늘 샘 단물내어 기도의 맥박이 살아나고 별거벗은 속살이 눈물로 핏물로 하늘에 피어나 새 예배당 향기로운 재물 되었구나

일곱 금 촛대마다 불이 켜지고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얀 신부 되어 영원히 영원히 불을 밝히리



- 새 예배당 증별 배치 -

층별	배치	
1층	웨스트민스터홀, 미스바홀, 장년5부, 장년4부, 사랑부, 서적-테이프 보급, 봉사-친교, 출판인쇄홍보, 사무국	
2층	본당	새가족 등록실, 장로실, 예배위원 준비실
3층		성찬준비, 헌금개수, 개인기도실, 음향-조명-멀티미디어봉사단
4층		2세이상 유아, 0~1세 유아, 동시통역실
5층	중등부, 임마누엘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 영어성경반,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베들레헴 찬양대, 은빛 찬양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중등부-영어성경반 교사실, 부속실, 집전실, 목양실, 교역자실, 교구실	
6층	고등부, 청년부, 새가족부, 유년부, 에바다부, 고등부-청년부 교사실, 장년2부, 새 가정부, 유년부 교사실, 글로리아 중찬단, 아멘 관현악단	
7층	장년3부, 초등부, 대학부, 초등부-대학부 교사실, 장년3부-교사실, 필그림 중찬단, 장년1부-교사실, 유치부, 유치부-교사실	
8층	비전홀, 장년1부, 휴게실, 만나홀, 탈의실, 주방	
지하.2,3층	주차장,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 새 예배당 예배순서 -

예배	예배참석 부서	분반학습
I부 예배 (09:00-09:50)	가족 예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 1, 2, 3, 4, 5, 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1, 2, 3, 4, 5, 부 유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분반공부 (10:00-10:30) 순서 1. 찬양(235장) 2. 기도(교역자) 3. 찬양(부서 찬양대) 4. 광고(교역자 또는 부장) 5. 분반공부
II부 예배 (11:20-12:30)	주일예배 에바다부 사랑부 영어성경공부반	에바다부 사랑부 영어성경공부반 유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III부 예배 (14:00-15:10)	▶경배와 찬양 (13:30-13:55) 청년예배 대학부 청년부 새 가정부 ▶예배후 분반공부	대학부 청년부 새 가정부 유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새 예배당시대 교육부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예배당 시대는 각 부서의 예배 시간과 분반학습 순서 등이 조금씩 변경된다.

먼저 I부 예배(family service)에 참석하는 부서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교육5국에 소속된 장년부이다. 9시부터 9시 50분까지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후 10분간 각 부서 교실로 이동하여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분반학습이 진행된다. 유년에서 장년까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사랑부, 에바다부, 영어성경공부반이 참석하게 되며 I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분반 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이 2부 예배를 드리게 된다.

3부 청년예배는 대학부, 청년부, 새가정부가 참석하게 되고 예배후 각 분반학습시간을 갖게 된다.

유아부와 유치부 새가족부는 1, 2, 3부 공히 자체 예배 또는 교육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2001년도 공과교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본 텍스트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영어성경반은 OPC교재를 사용기로 했다.

2001년도 농어촌 100교회 접수현황

- 1구좌: 김규테 박미혜, 김명심외20명, 김복녀, 김복순 정동학, 김상철, 김종자, 남태선 하인선, 노영숙, 루디아전도회, 박두호, 박순옥, 박정순 김경옥, 박철훈, 빌립션 교회, 사랑의 회, 새가족부, 안인호 이명신, 원영애, 윤봉준, 이강인 허숙, 이남성, 이성근 김영림, 이양길 김미향 이성화, 이영기, 이임희 백영희, 임광식, 임상현, 장명순, 전기섭, 제1권사회, 청년부, 최재규 천경화, 한나전도회, 한정아 외 2-16다락방, 홍순복, 교역자회
- 2구좌: 모세전도회, 베드로전도회, 제2권사회
- 3구좌: 뫼비전도회, 에스더전도회, 엘리야 선교회
- 4구좌: 바울선교회
- 5구좌: 사라전도회



등정

- 강남(XCU(기독교교회)) 피아노1대 기증
- 이관규집사, 이순영집사(9교구) 피아노2대 기증
- 김호선집사, 김훈집사 (12교구) 피아노1대 기증
- 정동학집사, 김복순집사 (8교구) 피아노1대 기증
- 김진환 집사, 신자경 집사 (3교구) 피아노1대 기증
- 무명인 (2교구) 피아노1대 기증
- 무명인 (2교구) 피아노2대 기증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김치동문화대형기율1결 기증
- 정치은, 김영현 성도 (9교구) 독남

금주 식사제공 가정

: 김영주 집사, 이해순 권사(1교구)

이중은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3. 임명받은 사명자 위하여
4.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